제9회 이사회 의사록

2010년 10월 28일

한국콘텐츠진흥원
KOREA CREATIVE CONTENT AGENCY

제9회 이사회 의사록

1. 일　　시 : 2010. 10. 28(목), 07:30~09:00

2. 장　　소 : 조선호텔 2층 라일락룸

3. 참 석 자 : 총 8인

(상임이사 3인, 비상임 이사 4인, 비상임 감사 1인)

○ 이　사 : 이재웅 의장, 최영호 이사, 정동천 이사, 권택민 이사,
김 행 이사, 유해영 이사, 김재하 이사,

○ 감　사 : 이문진 감사

○ 간　사 : 이인숙(콘텐츠진흥원 경영기획팀장)

4. 개 회

○ 이재웅 의장이 인사말씀을 하다.

○ 간사인 이인숙 경영기획팀장이 성원보고를 하다.
(이사 및 감사 8명이 참가하다.)

○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의결안건 설명을 간사께 요청하다.
(개회시간 07시 35분)

○ 간사가 보고안건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하다.

의결안건 제1호 : 한국콘텐츠진흥원 중기(2011~2013) 중기 경영 목표(안)

○ 의장이 제1호 의결안건을 상정하다.

○ 의장이 간사에게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요청하다.

○ 간사가 제1호 안건인 한국콘텐츠진흥원 중기(2011~2013) 경영 목표(안)에 대하여 간략 설명하다.

○ 간사가 세부 설명을 산업정책실장에게 요청하다.

○ 산업정책실장이 중기 경영목표에 대해 설명하다.

○ 의장이 간사와 산업정책실장의 보고를 받은 후 이사들의 의견을 요청하다.

○ 권택민 이사가 중기 경영목표에 대해 제출을 위한 것인지 실행을 위한 것인지 질의하다.

○ 산업정책실장이 제출과 실행 두가지를 위함이라고 답하다.

○ 권택민 이사가 몇 가지 안을 제시하다. 첫 번째, 문화부의 중장기 계획과 콘텐츠진흥원의 중기 경영목표의 접목이 중요하다. 두 번째, 지역산업 활성화에 대한 고민을 해야한다. 지역과의 협력 문제 및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. 세 번째, 전략목표의 선순환 구조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다.

○ 원장이 문화부 계획과 연계 논의가 있었는지 질의하다.

○ 부원장이 제출과 실행에 대한 차이를 설명하다.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것과 문화부와 협의하는 것이 있다. 70~80%가 경영목표이고 20~30%가 사업부분이다. 비전이나 미션을 만들 때는 그것이 맞는데 이것을 경영평가를 위해 수치로 나올 수 있는

내용으로 만든다.

- ○ 김재하 이사가 중기경영목표는 평가를 위한 계량적인 자료로 나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, 경영평가와 기관장평가를 위해 만든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의견 개진하다.
- ○ 김재하 이사가 매번 평가 시 문화기술이나 융합콘텐츠에서 나오는 논문이나 특허 숫자가 매번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음을 말하며,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의견 개진하다.
- ○ 원장이 과제를 어떤 것으로 설정하든지 철저히 평가하여 실질적으로 유용한 결과물을 내놓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 개진하다.
- ○ 유해영 이사가 논문의 수보다는 상용화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다.
- ○ 정동천 이사가 유해영이사가 미래위원회에 계시기 때문에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다고 의견을 개진하다.
- ○ 권택민 이사가 콘텐츠진흥원의 정책 방향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다.
- ○ 유해영 이사가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성과 위주 중심으로 지표에 맞춰서 만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내부용으로 만들때는 이사들에게 보내주어 참고했으면 한다고 건의하다.
- ○ 산업정책실장이 2011년도 사업계획 보고 시 자세하게 다시 보고 드리겠다고 보고하다.
- ○ 의장이 추가질의가 없음을 확인하고, 원안대로 의결하다.

의결안건 제2호 : 2010년 방송진흥기금 운용 계획(안)

○ 의장이 제2호 의결안건을 상정하고, 간사에게 제안 설명을 요청하다.

○ 간사가 제2호 안건인 2010년 방송진흥기금 운용 계획(안)에 대하여 설명하다.

○ 의장이 간사의 보고를 받은 후 이사들의 의견을 요청하다.

○ 유해영 이사가 부원장에게 추가 설명을 요청하다.

○ 부원장이 방송기금 운용 계획안 중 기존과 다른 부분에 대해 설명하다.(이율 및 신용융자 등)

○ 유해영 이사가 업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안이라고 의견을 개진하다.

○ 김재하 이사가 신규사업인지를 질의하다.

○ 부원장이 신규사업이 아닌 계속 사업으로 매년 지원하고 있음을 설명하다.

○ 김재하 이사가 이자부분에서 기업이 이익을 본다고 생각하면 되겠다고 의견을 개진하다.

○ 권택민 이사가 완성보증과 프로세스가 같은 지를 질의하다.

○ 부원장이 완성보증과는 다른 프로세스임을 설명하다.

○ 권택민 이사가 경기도에서도 대출보증제도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다.

○ 김재하 이사가 참여기업의 종류에 대해 질의하다.

○ 부원장이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음을 설명하다.

○ 김행 이사가 실질적으로 작은 PP들은 담보없이 대출받기

어렵다. 담보가 있어야 하는가를 질의하다.

○ 부원장이 담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였고, 이번에 신용담보를 추가로 삽입하였고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다.

○ 의장이 추가질의가 없음을 확인하고, 원안대로 의결하다.

5. 폐 회

○ 의장은 이상으로써 모든 안건이 처리되었음을 알리고 폐회를 선언하다. (회의 종료시간 09시 00분)

상기 의사록을 확인함

2010년 10월 28일

한국콘텐츠진흥원

의 장 이재웅 (인)

상임이사 최영호 (인) 상임이사 정동천 (인)

이 사 유해영 (인) 이 사 권택민 (인)

이 사 김재하 (인) 이 사 김 행 (인)